

송파구의회, 제331회 임시회 개·폐회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5월 7일(목)부터 5월 14일(목)까지 8일간의 제33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7일(목)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이 있었고, 14일(목) 제2차 본회의는 5분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및 안건처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 이혜숙 의장은 “회기 동안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6월 3일 선거에도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우리 의회도 앞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제 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제1차 본회의, 2026년 3월 5일)

오세훈 시장님, 40년 주민 고통의 대가가 민간의 이익입니까?
박종현 의원(가락2동,문정1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혐오시설을 안고 살았던 주민들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여 시설과 분양 중심 개발을 약속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기존 약속을 뒤집고 전체 물량의 절반을 '미래내 집'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 수익 구조가 악화하고 공공기여마저 민간투자자로 바뀌었다. 이는 정책 변화로 생긴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이에 원안 복원을 요구한다.

제 3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제1차 본회의, 2026년 5월 7일)

문정 화훼마을 화재를 통해 본 재난 이후 행정의 과제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문정 화훼마을 화재는 재난 이후 주민 지원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부서별 대응은 있었지만, 주민들은 지원 절차와 문의 창구를 알기 어려웠고, 일부 피해 주민은 아직도 빈집과 경로당을 전전하고 있다. 피해 주민이 한곳에서 지원과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통합 창구와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제 3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제1차 본회의, 2026년 5월 7일)

홍보는 잠시지만 안전은 평생입니다
김순애 의원(잠실본동, 잠실2·7동)

현수막 안전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낮은 설치와 관리 소홀은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 선거를 앞둔 지금, 세 가지 안전 기준을 제안한다. 설치 높이 2.5m 이상 확보, 수시 점검과 보수 작업을 실시하는 '관리 책임제' 시행, 교차로 코너나 협소한 보도에는 설치를 자제하는 자율적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홍보보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지금의 실천이 사고를 막는다.

제 3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제2차 본회의, 2026년 5월 14일)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면허 자진 반납이 가능한 생활 이동 대책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최옥주 의원(방이1동, 송파1·2동)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반납은 필요하지만, 반납 이후 병원과 시장 이용조차 어려워진다면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운전 제한이 아니라, 운전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일이며, 송파구는 교통카드·택시 바우처 지원, 찾아가는 운전 능력 상담, 사고 예방 장치 보급, 마을버스 연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송파구의회, 제332회 정례회 일정

송파구의회 본회의를 모바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332회 정례회: 2026. 6. 10.(수) 10:00 개회, 2026. 6. 24.(수) 10:00 폐회
※ 상기 일정은 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서울 가원초등학교]



송파구의회는 4월 29일(수) 본회의장에서 서울 가원초등학교 5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개최했다. 학생들은 이날 실제 구의원들이 진행하는 본회의와 동일한 절차로 체험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송파의정 24시

MICE산업단지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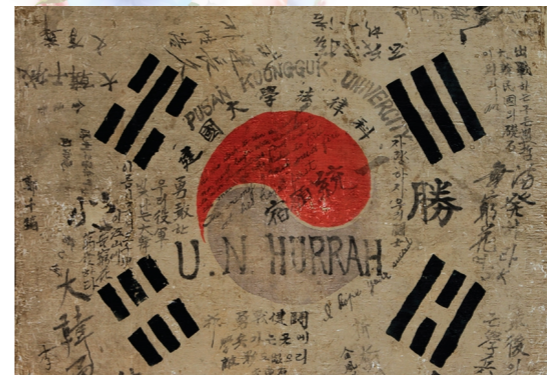


탄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현장



제71회 현충일

고귀한 희생 가슴길이 새깁니다.



건국법정대학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독립기념관 제공)